



김인섭(광주시체육회 소속) 선수가 10일 일본 카라츠에서 열린 레이저 레디얼급 경기에서 선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동메달을 기록한 김인섭은 국내 요트종목 사상 처음으로 세계대회서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광주체육회 김인섭 한국요트 사상 세계대회 첫 메달

세계 무대에 뚝 올랐다

日 레이저 레디얼급 선수권서 銅

광주시체육회 소속 김인섭(25) 선수가 국내 요트종목 사상 처음으로 세계대회에서 메달 획득의 쾌거를 이뤘다. 김인섭은 10일 일본 카라츠에서 열린 레이저 레디얼급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 한국요트 역사에 새 장을 열었다. 16개국 58명의 세계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김인섭은 강한 정신력으로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51점을 기록, 폴란드 루다스키 마르친(30점)·네덜란드 콤페라 벤(47점)에 이어 세번째로 시상대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김인섭의 동메달 획득은 한국요트가 이제 아시아권을 벗어나 세계

정상권에 진입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아울러 내년 광주우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 획득 가능성도 높였다. 김인섭 선수는 11일 귀국 후 광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대회를 앞두고 체력·정신력 강화 등 준비를 많이 했었다"면서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뤄 결코 뒤지지 않는 결과를 얻게돼 기쁘고 열렬히 축하한다"며 동메달 획득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인섭은 "이번 대회에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앞 선수들을 따라잡는데 전력을 다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었

고, 부정출발 등의 위기도 있었지만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고 경기를 풀이간격 주효했다"며 경기 중 힘들었던 순간을 털어놴. 특히 그는 "대회 코스 중 풍하코스(뒷바람이 부는 코스)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따라잡기도 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이번 대회 최고의 수확"이었다고 말했다. 김인섭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로 뽑혀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게 목표이다"면서 "나아가 올림픽 출전 기회도 주어진다"며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출신인 김인섭은 지난 2005년 황영길 광주시요트협회 전무이사에 의해 광주시체육회 소속으로 스카우트 되었다. 그는 지



난해 8월 제3회 해양스포츠제전에서 레이저급 금메달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면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또한 올들어 국가대표 레이저 레디얼급 선발 2차전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부산대에서 박사과정 중인 김인섭은 지난 겨울엔 자비를 들여 뉴질랜드서 45일간 전지훈련을 가졌던 무서운 노력파이다. 황영길 전무사장은 "경기 중 조류상황·파도모양·바람변화 등에 대한 판단이 빠르고 정확한 큰 장점으로 침착성만 보완하면 반드시 세계적인 선수로 커나갈 인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KIA 폭우에도 훈련 열기

코치진 "감기들라" 만류... 선수들 자발적 러닝·배팅



마구마구

주말 군산에서 더위와 씨름했던 KIA 타이거즈 선수들은 11일은 비와 힘겨운 전쟁을 벌였다. 경기전 훈련이 진행되던 이른 오후 무등경기장에는 비가 오락가락했다. 두어 차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내리면서 선수들이 급히 덕아웃으로 철수해야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수들은 실내 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러닝을 하는 등 예정된 모든 일정을 소화한 뒤에야 휴식을 취했다. 따로 코치진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방망이를 든 선수들은 자발적으로 러닝과 배팅 훈련을 소화했다. 오히려 '감기 든다'고 빙속에서 배팅을 하는 선수들을 말려야 했을 정도다. 김종수 수석코치는 "정식 훈련 시간은 오후 3시인데 선수들이 훈련을 자발하면서 황병일 코치가 따로 시간을 배정한다"며 선수단 분위기를 전했다. 훈련 열기가 뜨거웠던 이날 덕아웃의 화제는 단연 김원섭의 만루포였다. 김원섭은 9일 군산월명야구장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2-3으로 뒤지던 9회 2사 만루에서 자신의 프로데뷔 첫 만루홈런으로 짜릿한 끝내기 역전극을 장식했다. 팀은 이 홈런으로 9연승이라는 고지에 올라섰다. 선수들은 덕아웃에서 당시 훈련 상황을 얘기하며 잠시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했다. '무등경기장이었다면 담장을 넘어갔을까?'라는 주제를 놓고도 선수들의 추리가 이뤄지기도 했다. 군산구장은 중앙 펜스가 122m로 무등경기장의 120m보다 2m가 더 길다. 하지만 좌우 펜스는 98m로 무등경기장(99m)이 1m 더 더 길다. 끝내기 홈런이 나온 이날 바람의 도움도 있었다. 결론은 '끝내기 안타'였다. 펜스길이가 더 멀기도 하고, 펜스 위로 설치된 철망이 군산구장보다 높아 공이 철망을 맞고 뒤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어찌 됐든 김원섭은 이날 덕아웃에서 가장 주목 받는 선수가 됐다. 주인공 김원섭은 휴식일 이었던 10일 경기를 몇 번이고 되돌려 보느라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했다. 김원섭은 "가볍게 스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니 제대로 홈런 스윙이 이루어졌다"면서 "끝내기 장면을 50번은 넘게 되돌려 봤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봉황대기 우승 도전 실패

천안북일고에 1대5 패

광주일고의 봉황기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광주일고는 10일 수원야구장에서 열린 제39회 봉황기전국고교야구대회 천안북일고와의 결승에서 상대 선발 김용주의 호투에 밀려 1-5로 패했다. 1회부터 마운드가 흔들렸다. 선발 이정호가 첫타자에게 몸에 맞는 볼을 내준 뒤 김용업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내주며 1회를 버티지 못하고 심동섭과 교체됐다. 2회초 광주일고의 선두타자 손준혁이 몸에 맞는 볼로 나간 뒤 허일의 3루타가 나오면서 1-1로 동점이 됐다. 하지만 무사 3루에서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추가 점수가 나오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철호의 득점 기회를 놓친 뒤 광주일고는 3회와 4회 각각 1점을 내주며 1-3으로 쫓겼다. 6회에는 심동섭이 천안북일고 선두타자 오준혁에게 솔로 홈런을 맞으며 무너졌다. 유창식까지 투입했지만 8회말 천안북일고 홍성갑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경기는 1-5로 마무리 됐다. 천안북일고 선발 김용주는 9이닝 동안 안타 4개 볼넷 6개를 허용했지만 1실점으로 광주일고를 막고 승리투수가 됐다. 김용주는 삼진 9개를 잡아내며 이번 대회 4승으로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2004년 2005년 봉황기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광주일고는 1983년 이후 26년만의 봉황기 우승에 도전했지만 타선 불발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을 마지막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 내일 개막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이 13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키의 헤이즐턴 내셔널골프장(파72·7천674야드)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선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의 2연패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2년만의 정상 복귀가 세계 골프 팬들의 최대 관심사일로 떠올랐다. 사진은 최경주가 11일 연습라운딩에서 갤러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요트경기 방식은

요트경기는 삼각·사각·M자·풍상풍하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해상에 부표를 띄워놓고 제한시간(보통 1시간 30분)내에 가장 빨리 완주한 배를 승자로 하는 경기이다. 경기 당일 바람·조류·파도 등 해상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요트경기는 한번의

12차례 레이스 펼쳐 순위 결정

레이스로 결과를 내리지 않고 여러차례의 경기를 펼친 후 종합점수로 순위를 결정한다. 국내·국제 경기에선 1일 1~2(3)회 레이스로 총 9~12회 레이스를 펼쳐 그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의 레이스 별점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스 별점의 합계로 승패를 결정한다. 채점방식은 보너스 점수 채점방식과 낮은 점수 채점방식 두가지가 있다. 보너스 채점방식은 1위 0점, 2위 3점, 3위 5.7점, 4

위 8점, 5위 10점, 6위 11.7점, 7위 이하의 순위+6점의 별점이 주어진다. 낮은 점수 채점방식은 1위 1점, 2위 2점, 3위 3점, 4위 4점 등 순위대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최근 국제대회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요트에는 수많은 세부종목이 있는데 이는 배 모양에 따라 나뉘어지고 경기방식은 모두 똑같다. 레이저 레디얼급도 이러한 세부종목 중 하나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목포 국제여객선터미널 정기셔틀버스운행 (7/25일부터~매일)
시들버스 및 안식 편의 및 예약 : (주)수동관광 062)383-9042